

# ‘서민은 鐵人’ 아파도 참는다

### 경기 한파에 병원 갈 엄두 못내... 광주·전남 입원 환자 크게 줄어

### 약국도 환자 끊겨 매출 30% ‘뚝’

“아파도 참는다.”  
극심한 경기 한파가 서민들을 철인(?)으로 만들고 있다.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도 않는다. 아픈 곳이 없어도 췌기 먹었던 보약, 이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비교적 값싼 영양제나 종합비타민도 끊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서민들이 의료비부터 줄이고 있는 것이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병원의 입원실 구하기도 쉬웠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총 1천 병상(베드)의 가동률이 월 평균 90% 이상이

어서 환자가 많은 내과 등은 사실상 입원실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병상 가동률이 70%를 보이는 등 환자가 급감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다소 환자가 늘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과 겨울 휴가철만 되면 고가 수술 환자로 ‘대박’을 터뜨렸던 삼총사적인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도 죽을 췌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해와 비교하면 매출이 절반 가량 떨어졌다는 게 개원의들의 얘기다.  
이중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운영비도 건지자 못하는 곳도 있다. 수십만

원에서 200~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술비 때문에 줄어드는 환자를 붙잡기 위해 비용을 40%까지 깎아줘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광주 A성형외과는 300만원의 초고가 시술인 얼굴 주름 제거술 환자 수가 월 평균 8건에 달했으나 최근 시술비를 180만원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건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B피부과도 겨울방학에는 매일 크고 작은 수술이 4~5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하루 1건, 많아야 2건에 불과하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분위기가 탓에 비교적 고가의 보약이나 치료용 탕액이 주 매출원인 한의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한의원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7곳에 달했다. 광주 서구 D한의원은 지난 해 초만 하더라도 하루에 탕제약을 짓는 환자가 5명 정도였으나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약국들도 비타민이나 간장약,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는 물론 노인들의 관절염 약까지 판매량이 줄어들어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  
광주시 동구 대성약국 관계자는 “보통 종합비타민 등 영양제는 하루 5통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1통 정도 팔리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약값을 인상해도 줄어드는 소비자를 때문에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약국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지검 중간간부 줄사표

### 간부 인사 ‘후폭풍’

최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광주고검 검사 2명과 광주지검 부장검사 1명이 사표를 내는 등 지청장 및 지검 부장급 검사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난 박문호 검사와 최상철 광주지검 형사1부장, 이상철 광주고검 검사 등 3명이 인사 발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부산고검으로 발령난 김태희 서울고검 검사를 비롯, 이광형 대전고검 검사(서울고검 발령), 김진태 원주지청장(서울고검 발령), 이홍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서울고검 발령) 등도 검찰을 떠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밖에 성시웅 부천지청장·구본민 안산지청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조정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손영재 울산지검 형사1부장 등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줄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사표를 낸 중간간부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방지검이나 고검으로 발령난 뒤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TK(대구·경북) 특직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난해보다는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386명), 검사 신규임용(112명) 등 총 515명에 대한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명단 16면)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CGV 유료관객 수 줄여 세금 탈루 의혹

극장 체인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가 유료관객 수를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황인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CJ CGV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경남 김해CGV의 유료 관객수를 9만8천여명 적게 신고해 약 5억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국의 59개 CJ CGV 극장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말 현재까지 515명에 대한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명단 16면)를 2월9일자로 단행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진지한 ‘사이언스 캠프’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사이언스 캠프’에 참여한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개 지역 과학고 학생들이 과학 실습을 하고 있다. 이 캠프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성형수술 결과 고민 20·30대 여성 자살

성형수술 등을 받은 뒤 수술 결과 등을 놓고 고민하던 20·30대 여성이 잇따라 자살했다.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에서 사는 M(여·31)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M씨의 언니(3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M씨는 이날 중순께 광주 모 병원에

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보통 정도 경과를 지켜 보라”고 했지만, 부기가 가라앉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씨가 숨지가 직전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엔 북구 모 초등학교에서 L(여·24)씨가 모 대학병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평생 교정을 끼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뒤 자살했다. /이종형기자 gilee@

### 순천경찰 ‘땅굴 기름 절도’ 40대 검거

경찰이 지난 21일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송유관 근처에 땅굴을 파고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 가운데 한 명을 검거했다.  
순천경찰은 28일 송유관 매립지의 땅굴을 파 뒤 기름을 빼내려고 한 이모(4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손모(45)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달부터 한 달 간 손씨와 사촌 이모(45)씨 등과 함께 순천시 승주읍 국도변의 주막을 빌려 10m 떨어진 송유관까지 폭 1m, 길이 10m의 땅굴을 파고, 이후 사촌 이씨는 지난 21일 오전 땅굴에 들어간 뒤 드릴로 송유관에 지름 약 2.5cm의 구멍을 뚫었으나 갑자기 흘러나온 기름의 압력과 유증기에 질척돼 현장에서 숨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희기자 ejkim@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판 : 061) 337-0571

외출 중이던 전경이 절도범 잡아  
○외출 중이던 장성경찰 소속 전경 2명이 20대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절도범을 겨냥 끝에 검거.  
○2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장성경찰 611전투경찰대 3소대 소속 강희원(23)·김문산(23) 상경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장성군 장성읍 장성읍체국 앞길에서 장모(여·23)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김모(21)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  
○강 상경 등은 우연히 범행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장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겨우 끝에 김씨를 붙잡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작정 쫓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강 상경 등에게는 특별휴가 등의 포상을 검토.  
/장성=류중선기자 yjs52@kwangju.co.kr

절찬리 방영 제품 KBS MBC SBS Y7N  
**굿모닝365** Goodmorning 365  
1石2鳥  
**보양음료 속취해소**  
간(肝)기능보호/피로(스트레스)감소  
대한민국 1등 건강보양차  
전부추출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18가지 임상검증  
\* 발명특허 제0406822호  
\* GMP등록(제조물 관리법)  
\*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검증  
\* 미국 FDA-무독성판정 (CFR21-Eurofin lab)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굿모닝365는 남녀노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시·군별 대리점 모집 영업사원 모집  
(주)굿모닝3651 광주·전남지사 062-267-7753  
상담 및 구입문의 011-9612-8700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속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패				▶주택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평가	최저가
지석동	151/213	11억9500만	3억5380만	영양동	200/44	8840만	4950만	광주	청담/구도	15층	34	1억9500만	7350만
학동	194/220	11억9500만	6억1600만	호성동	38/38	9800만	6860만	우산동	대림/구도	1층	35	1억9000만	1억9400만
공동	48/233	8억3500만	4억8800만	봉곡동	88/35	8820만	6170만	금호동	대림/구도	14층	24	9000만	6300만
오치동	50/52	1억8120만	9030만	중흥동	42/48	9520만	6880만	안산동	한림	2층	24	6000만	4200만
안산동	362/294	41억4000만	21억2000만	진월동	40/46	8180만	4580만	안산동	한국	20층	33	8000만	5600만
신안동	110/257	6억8100만	3억5000만	우산동	48/40	1억2200만	6840만	소촌동	아이스루트차	12층	36	1억4000만	9800만
광양사면	112/113	1억28680만	1억8080만	문흥동	54/60	1억7200만	9360만	봉림동	드림차	7층	29	6800만	4760만
중앙동	98/43	6800만	4760만	우치동	112/45	2억2980만	1억8088만	주월동	한림차	3층	38	2억7000만	2억1800만
				영양동	125/26	3750만	2400만	대림동	아이스루트차	1층	35	1억9800만	9800만
				월곡동	33/40	9964만	7000만	문흥동	금호	5층	42	1억7600만	1억2320만
				계림동	95/96	1억7300만	7500만						
				나주시내	200/54	4850만	2720만						
				중흥동	48/53	1억1920만	6875만						
▶근린주택				▶다세대				▶토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우치동	152/58	18억4800만	7억4230만	운암동	44.9	2억	1억1200만	관동동	전	528	3665만	2565만	
광동동	203/180	6억7860만	3억8600만	곡성동	20.4	2800만	1960만	관동동	임야	2283	6868만	3850만	
중흥동	53/201	4억4820만	3억2770만	광양동	57.1	1억9000만	8960만	관동동	임야	887	2053만	1440만	
광동동	130/247	7억9000만	3억8660만	광양동	14.8	4000만	2240만	관동동	임야	179	4618만	3232만	
우산동	47/67	1억8100만	8600만	광양동	8.7	2700만	1890만	관동동	임야	1495	3460만	2442만	
				광양동	18	2400만	1680만	관동동	임야	177	1억2700만	1억1270만	
				광양동	17.8	3000만	2100만	관동동	임야	1086	1800만	1260만	
▶다가구(월세)/숙박시설				▶오피스텔				▶공장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신안동	80/121	3억7140만	2억4000만	구동	9.2	4300만	1830만	관동동	다/건	634/185	11억5080만	5억1560만	
신안동	63/105	3억3220만	2억2800만	지평동	47.4	3억8000만	2억5200만	관동동	다/건	1247/641	7억766만	3억7700만	
지산동	85/118	3억2530만	2억2770만	호성동	12.2	5500만	2464만	관동동	다/건	1565/689	23억2100만	13억	
학동	82/733	4억9540만	3억4700만	지평동	24.1	1억9000만	6720만	관동동	다/건	1292/706	12억2400만	5억4830만	
우산동	74/89	2억4640만	1억4800만	지평동	13.7	8600만	3090만	관동동	다/건	503/412	9억3800만	6억7760만	